최익래 기자, KT 마무리캠프 가오슝에 가다 | 유한준 재계약에 훈훈해진 '마법사 군단'

2년 20억 일사천리 계약…유한준 "KT 은퇴 꿈"

유한준 "가을야구 약속 꼭 지킬 것"
이강철 감독 "후배들 더 이끌어주길"
후배 오태곤 "형 재계약 너무 기뻐"

프리에이전트(FA) 유한준(왼쪽)이 19일 원 소속구단인 KT와 재계약을 체결한 뒤 이숭용 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유한준은 계약기간 2년, 총액 20억 원에 재계약하면서 KT와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제공 | KT 위즈

KT 위즈가 '집토끼' 유한준(38)을 눌러앉히는 데 성공했다. 2년 총액 20억 원에는 제2, 제3의 유한준을 향한 기대가 담겨있다.

KT는 19일 "FA 유한준과 2년 총액 20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계약금 8억 원·연봉 5억 원·옵션 2억 원이며, 옵션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한준은 2016시즌부터 4년간 KT에서 503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4, 61홈런, 301타점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139경기에서 타율 0.317, 14홈런을 마크했다.

이번 계약은 합의 시기가 관건이었을 뿐, 성사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유한준은 KT 잔류 외에 다른 카드는 생각조차 안 했고, KT 역시 그를 필요로 했다. 유한준은 에이전트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구단과 만났다. 5일 이숭용 단장과 한 차례 식사를 했고, 18일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 규모를 전달받았다.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계약에 합의했고 19일 오전 구단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다.

계약 발표 직후 '스포츠동아'와 연락이 닿은 유한준은 "팬들에게 가을야구 진출을 약속했는데 이를 못 지켰다. 팬 여러분들이 '다음 2년 동안 약속을 지켜라'는 의미로 계약을 선물주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협상이랄 것도 없었다. 구단이 시즌 내내 나를 존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고민도 안 했다. 4년 전 나를 불러준 팀이다. 여기서 잘 마무리하는 게 야구인생 마지막 숙제"라고 강조했다.

KT가 유한준을 잡은 건 단지 그가 '확실한 3할타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2019년 주장으로 헌신하며 창단 첫 5할 승률을 이끈 '리더 유한준'의 가치도 필요했다. 이 단장은 "(박)경수와 (유)한준이는 우리 팀 프랜차이즈 선수인 동시에 젊은 선수들의 롤 모델"이라며 "제2, 제3의 유한준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도 유한준답게 귀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한준은 19일 오전 도장을 찍은 뒤 곧장 대만에서 마무리캠프 지휘 중인 이강철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움을 전해 받은 이강철 감독 역시 "1년 동안 주장으로서 고생 많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의 2년도 선수들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무리캠프 캡틴' 오태곤(28)은 "주장을 직접 해보니 얼마나 고생하는지 느꼈다"며 "한준이 형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수다. 너무 많은 걸 배웠다.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형의 계약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반색했다. KT의 모든 선수들 반응은 비슷했다. 이들이 제2, 제3의 유한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곧 KT가 그만큼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ing17@donga.com

KT '뎁스 살찌우기' 돌입
주전 뒷받침할 자원 강화

KT 위즈에게 2019년은 여러 모로 낯선 해였다. 2015년 1군 진입 이후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던 KT가 시즌 막판까지 가을야구 경쟁을 펼쳤다. 비록 포스트시즌(PS)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창단 첫 5할 승률을 거두며 확실하게 도약했다.

과정은 치열했다. KT는 올해 한 점차 경기만 38차례 소화했다. 한화 이글스(44경기)에 이은 최다 2위였다. 1점차 경기 승률은 0.474(18승20패·5위)로 나쁘지 않았지만 자연히 선수단에는 피로도가 감돌았다. '필승조' 주권, 김재윤, 전유수, 이대은 등 몇몇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렸다.

결국 '뎁스'의 문제였다. 이강철 감독이 점찍은 선수들이 1군에서 활약하며 새 얼굴을 여럿 발굴했지만, 이들의 뒤를 받칠 자원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떠난 대만 가오슝 마무리 캠프. 선수단의 힘이 달랐다. 아직 프로 데뷔 홈런이 없는 김민혁을 비롯해 심우준은 타구를 담장 밖으로 보냈다. 이 감독은 다시 한 번 휴식의 중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20시즌 도중에는 주축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휴식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수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아야 한다. 이 감독이 꼽은 마무리 캠프 목표도 뎁스 자원 확보였다. 실제로 투수진에서 하준호, 박세진, 김성훈 등과 포수 문상인 등이 스태프의 호평을 받았다. 이들이 1군에서 백업 역할만 수행해줘도 주전들의 적절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KT의 뎁스 살찌우기 과정이 조금씩 효과를 거두는 분위기다. 가오슝(대만) | 최익래 기자

김경문호, 착시현상 걷어내야 일본 이길 수 있다

'일본보다 강하다'는 생각은 금물
올림픽 전 기본기·디테일 다듬어야

7승7패.

2006년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08베이징올림픽, 2015년과 올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까지 대한민국 야구대표팀과 일본의 상대전적이다. 정예멤버로 맞붙은 경기의 성적이라 변별력이 있다. 오히려 이번 프리미어12 전까진 한국이 7승5패로 앞섰다. 그러다 보니 프리미어12에서 일본에 2연패를 당하며 우승을 놓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상대전적이 팽팽하다고 해서 한국 야구가 일본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일본에 패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잘 싸웠다고 칭찬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실제로 인프라 등의 시스템은 물론 선수들의 기본기와 디테일, 경기를 읽는 시야에도 차이가 크다. 일본은 철저한 팀플레이를 요구하면서도 수비 시 움직임 등의 디테일에선 선수 개인의 능력을 살려주는 지도방식을 택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 위치에서만큼은 맡은 역할을 확실하게 해낸다.

더불어 일본은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승부처에서 한 점을 짜내 승리하는 야구를 추구한다. 기본 실력에 철저한 분석을 가미하니 성적은 따라오고 국가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위상도 점점 상승한다. 이번 프리미어12에서 투수 센가 고다이(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외야수 아키야마 쇼고(세이부 라이온즈) 등 투타의 핵심이 도중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이유다.

설욕을 다짐한 2020도쿄올림픽까지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올림픽이 주는 중압감은 프리미어12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때도 '지금까지 일본 상대로 잘했으니까'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면 또 실망할 수 있다. 착시현상부터 걷어내는 게 우선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